

광주기독병원, 공공보건의료조직 연계협력 워크숍 공동 개최

기관별 협력 경험 · 현장의견 공유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공공보건의료조직 연계협력 워크숍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숙영)은 6월 19일 광주 감내중년센터에서 열린 「2026년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조직 연계협력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연계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역 공공보건의료조직 간 협력체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보건 의료배터리 구축·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기관 간 연계협력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과정에서 주요 과제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조직 연계협력 안내서 활용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후 진행된 연계협력 실습 토의에서는 참석자들이 기관별 협력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 후 진행된 연계협력 실습 토의에서는 참석자들이 기관별 협력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최 이박 행 목사
미션리 주필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대표
건강한국교회사회도림 성임대표
광주YMCA 성구원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외형적 위축이나 재정적 감소가 아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로부터 마주하고 있는 냉담한 시선, 즉 '도덕적 신뢰의 상실'이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을 비롯한 교계 인력의 수많은 조사에서 확인되었듯, 현대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깊은 우려를 넘어 영적 권력의 실추를 가리키고 있다. 사회의 아픔을 지유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광공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핍물이 되었다는 뼈아픈 자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 깊은 절체의 눈을 벗어나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

프리가에 중분했다. 교회의 소유는 사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셋째, 사회와 이웃을 향한 극단적 배타성과 집단이기주의다.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보편적 상식을 존중하기보다, 오직 '자기 교회 중심주의'에 갇혀 소를 거두어 왔다. 공공의 유익과 공적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회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태도는 비개신교인들에게 깊은 거리감과 거부감을 심어주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고립된 신앙은 사회적 품의를 얻을 수 없으며,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고립될 뿐이다.

한국교회의 뼈아픈 자화상, '교회의 공공성'과 도덕적 품격 회복이 시급하다

해서는 반드시 도려내야 할 너 가지 핵심 병폐가 있다.

첫째, 신앙 고백과 삶이 유리된 언행일치의 부족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사랑과 공의, 희생과 헌신의 메시지는 순교하지만, 세상 속 교회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은 세속적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언어와 실천의 괴리는 종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사회가 교회를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교리나 기대 외형이 아니라, 일상에서 묵묵히 이웃을 섬기고 공의를 실천하는 도덕적 모범이다. 삶의 뒷받침이 없는 신앙은 울리는 썰매리와 같으며, 대중이 교회를 외면하게 만든 첫 번째 요인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내부 비리와 재정·권력의 세속화다. 교회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탈분주의와 불합주의가 깊숙이 침투했다. 일부 대형 교회의 번식적 세습 논란, 불투명한 재정 운영, 그리고 교단 권력을 둘러싼 갈등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가 아닌 세속적 이익집단처럼 비추게 만들었다. 낮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였던 예수의 정신은 가려진 채, 기복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을 쌓는 모습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

넷째, 극우·기복교 정치 편향과 이로 인한 과잉 대표 문제다. 한국교회 정치의 목소리라 보기 어려운 극단적 정치 성향의 인물들이 병행해서 자극적인 혐오와 선동의 언어를 쏟아내며 기독교의 전체 얼굴처럼 오인되고 있다. 복음의 보편적 가치와 화해의 정신 대신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낙인찍는 독선은 사회적 갈등을 증대시키는 거대한 악영향이 아니라, 이로 인해 신앙과 지역 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다수의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마저 도마 위에 오르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한국교회의 신뢰 상실은 외부의 환경적 요인보다 영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잃어버린 내부의 타락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이제 외형적 편향과 기복권 수호를 향한 눈먼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 목회자의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고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품격 있는 공공의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철저한 성찰과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섬기는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세상이 다시 교회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새날학교, 제13회 한국어 한마당 개최

말하기·시낭송·동화구연 등 한국어 실력 뽐내 고려인동포 자녀·다문화 청소년들 자신감 향상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 신하 새날학교가 지난 17일 교내 강당에서 「제13회 한국어 한마당」을 개최하고 고려인동포 자녀와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 성과를 선보였다.

이날 학생들은 한국어 말하기와 시 낭송, 동화 구연 등에 참여해 자신의 꿈과 희망, 가족 이야기, 한국 생활 적응 경험 등을 진솔하게 발표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새날학교 관계자는 "한국어는 고려인동포 자녀들과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

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새날학교의 한국어 교육 성과는 각종 대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려인마을과 광주새날학교는 2013년부터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참가해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상 수상자 6명을 배출하며 고려인동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난 17일 새날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어 한마당에서 고려인동포 자녀와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 성과를 선보였다.

이어오고 있다. 한편, 새날학교는 고려인마을이 설립·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학교형태 학력인정 위탁형 대인교육기관으로, 고려인동포 자녀와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정규교육과 함께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향상, 진로체험, 문화예술교육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통합교육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목회 통해 복지·교육·돌봄 문제 풀어야"

예정 마을만들기네트워크, '마을목회와 통합돌봄 특강'



예정 마을만들기네트워크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 크로스로드 회의실에서 마을목회와 통합돌봄 특강을 열고 통합돌봄 시대 교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예정 마을만들기네트워크 일 경기도 고양 크로스로드 회의실에서 '마을목회와 통합돌봄 특강'을 열고 통합돌봄 시대 교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합돌봄 특강'을 열고 통합돌봄 시대 교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올해 마을목회 10주년 기념특강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정성진)와 총회한국교회연구원(원장 노영삼)이 공동 주최했다.

최기락 이사장과 정성진 총장은 인사말에서 마을목회 1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교회기 마을목회를 통해 더욱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 마을목회와 통합돌봄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노영삼 원장(총회한국교회연구원)은 "마을목회는 공공신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개인 구원에 머무는 사적 종교를 넘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책임지는 공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마을목회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봤다.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기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사회복지"라며 "그 호명이 통합돌봄

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섰고, 돌봄·요양·의료 필요성이 높은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24.5%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두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400만 가구(이 중 1인 가구는 228만 가구), 장애인 가구는 229만 가구(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24년 기준)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가족 중심의 돌봄단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미션리 신문을 보냅니다

밝은 크리스찬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미션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찬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09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게 되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높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① 정기후원 :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i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자택으로 보내드립니다!

② 일시후원 : 계좌이체

- 농 협 : 301-0090-0060-71 예금주 : (유)미션21

NEWS



작성하신 후 휴대전화번호에서 카톡이나 텔레그램 보내주세요. C.P. 010-4692-7824 / e-mail: jpn2930@nate.com

미션리 정기구독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복음 많은 신문 미션21이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서벽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신청일자 :	
계좌 정보	
은행명 :	
예금주 :	
지정출금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만) 또는 사업자번호 :	
금액(매월)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부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	
후원기관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위와 같이 출금이체계좌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또는 서명

정통 기독교 주간신문 미션리
광주광역시 남구 월선로 69 (동삼빌딩 3층)
전화 : 062-367-9100, 364-9109 / 팩스 : 062-367-9108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제공약관, 저축금, 계약연속을 출금이체할 신문신청하는 데로써 해당신청법률에 따라 나의 승낙사항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제공요청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202년 6월 26일 또는 서명